

# 양수발전소 유치 필승전략 마련 총력 무주군, 재난관리 역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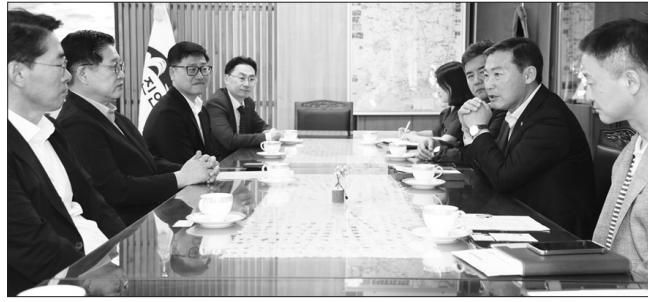
### 진안군, 한국동서발전과 전격 회동... '수몰가구 제로·압도적 주민동의' 입지 우위 부각

진안군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의 최종 낙점을 위해 핵심 파트너인 한국동서발전(주)과 손을 잡고 전방위적인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군은 9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이 진안군청을 방문해 전춘성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기조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유치 공세에 대응해 진안군민의 독보적인 우위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은 석탄 화력 대체 부지 가점이나 기존 댐 활용 유대 방침을 내세운 지자체들의 참여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춘성 군수와 권명호 사장은 진안군 후보지가 가진 '수몰 가구 제로(Zero)'라는 천혜의 입지 조건과 '3년 여간 다져온 상향식 주민 수용성'을 최대 강점으로 삼아 최종 심사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진안군 후보지는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시 최대 걸림돌인 '주민 이주 및 수몰 피해'가 단 한 곳도 없는 최고의 입지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갈등을 원천 차단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 양수발전소 공모의 최종 낙점을 위해 9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동이 진안군청을 방문해 전춘성 진안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고 착공 후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정량적 지표다.

여기에 군이 지난 2023년 유치 공식화 이래 다져온 민·관·경의 노력이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날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단 한 가구의 수몰 피해도 없는 진안군민의 차별화된 입지적 장점과 군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동서발전의 기술력과 진안군의 탄탄한 주민 수용성을 하나로 모아

최종 공모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가장 안전하고 갈등 없는 '수몰 가구 제로'의 강점을 정부 평가에 적극 피력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해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행안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안전정책과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산림 인접 주거지역에 특화된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공무원 1

마을 1담당관 제도'를 운영해 불법 소각 예방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자동화산소화기 35개소와 간이 스프링클러 31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철저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적상면과 무주읍에서 발생한 산불을 초기 진압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제설대책과 여름철 풍수에 대비 취약시설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집중호우와 대설 당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 무주덕유산리조트, 여름철 관광콘도라 운영 시간 확대

천혜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리조트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광콘도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고객들이 여유롭게 덕유산 실전봉과 함적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날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콘도라 운영 시간을 조정했다.

덕유산 관광콘도라는 선로 길이 2,659m를 약 15분 만에 오르내리며 해발 1,520m 설천봉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대표 명소다. 또한 설천봉에서 덕유산 정상인 함적봉(해발 1,614m)까지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20분이면 쉽게 오를 수 있어,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해 청정 대자연의 즐거움을 가득 단



워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하계 운영 기간 동안 주중 콘도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상행 탑승 마감은 오후 5시까지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1시간 30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주말 상행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출발

### 제10대 무주군의회 개원

제10대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9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제10대 무주군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의원들은 총환담에서 현화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린



뒤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

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광석 의장은 개원사에서 "군민과 함께 걷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군민과 함께 무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군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의회, 말보다 행동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무주군의회는 개원에 앞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 군민 중심의 현장 의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진안군, 관광지 연계 여행경비·스냅촬영 지원

진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 진안고원 치유숲 등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여행경비 지원사업'과

'진안고원 스냅촬영 지원사업'을 연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여행경비 지원사업'은 여행 전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플랫폼에서 사전 신청한 뒤 지정 관광지 및 가맹점을 이용하고 영수증과 SNS 인증자료를 제출하면 소비금

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여행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남길 수 있도록 '진안고원 스냅촬영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이 사진 또는 영상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전문 사진작가를 직접 섭외해 진안군 관광지에서 스냅촬영을 진행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촬영한 사진 3장 이상을 개인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나서

장수군은 지난 8일 관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열렸으며, 관내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수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과 최신 교통관계 법규 △차량 화재와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보건의료원, 어르신 건강하게(夏季)보내기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장계면 일원에서 '건강하게(夏季)보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별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요한 실생활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름철 건강수칙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 대처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폭염 예방과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톨스카프를 제공해 야외활동 시 체온을 낮추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기위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기위박물관이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유물인 포도가위, 자수가위, 황새가위와 연계한 만들기 체험으로,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7월 11일 포도가위와 연계한 '향기로운 포도 비누 만들기' △8월 22일 자수가위, 바늘, 실의 만남 '패브릭 키링 만들기' △10월 24일 뽀족한가위 보관을 위한 '라탄 가위집 만들기' △11월 21일 황새가위와 연계한 '석교방랑제 만들기'로 진행된다.

체험 시간은 매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진안군민과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체험일 전일까지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기위박물관에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